

산다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온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 곁에 가짜 친구들과 배은망덕한 친척들만 남았음을 알게 되지. 하지만 비르지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네. 우리와 함께일 때는 자연의 은총 덕분에 행복했고, 우리와 멀리 있을 때는, 덕성의 은총 덕분에 행복했지. 그리고 우리가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그 끔찍했던 순간에도, 비르지니는 여전히 행복했어. 섬사람 모두를 침통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식민지 전체에 시신을 두었던, 자길 구하려고 너무도 용감하게 달려오는 자네를 지켜봤든, 자기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았기 때문일세. 비르지니는 자신의 순수했던 삶에 대한 기억으로 앞날에 대비할 힘을 튼튼하게 다져왔고, 그렇기에 하늘이 덕성을 갖춘 자에게 마련해준 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보다 높은 용기를 받았다네. 그녀는 죽음에게 평온한 얼굴을 들어 보였던 게야.

이보게, 하느님께서는 덕성으로 하여금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겪게 하시어, 덕성만이 유일하게 그 사건들을 쓰임새 있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행복과 영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네. 하느님께서 덕성을 위해 눈부신 명성을 예정해두실 때는, 그것을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올리시고, 죽음과 대결하게 하시지. 그러면 덕성이 보인 용기는 본보기가 되고, 덕성이 겪은 불행은 기억으로 남아 후세 사람들이 눈물로 기리는 영예를 영원히